논 문
CODE 30101

거주자 가구배치 선호경향을 고려한 실 유형별 붙박이장 위치선정

Determination of closet position by room style based on movable furniture layout preference of residents

진경일* / Chin, Kyung-Il

Abstract

Korean traditionally prefer a house with a southern exposure to other styles. Moreover, pretty part of dwelling style in Korea is apartment building. But generally, there are much more north oriented rooms than opposite one in apartment. Generally, most Korean tends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room as an important factor to decide the arrangement of their furniture. Also, the location of window, door, bed, and closet can affect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furniture layout. So, the closet position should be determined by not only window direction and door position, but also the furniture arrangement preference of residents. After considering the window and door position, there are 16 alternatives in a room. (Multiplied 4 window directions by 4 door position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window and the door cannot be on the same side of the wall.) Also, this study analyzed each room style ratio considering the symmetry of each plan by comparing the apartment building plan. This paper studied the bedroom style by analyzing the 180 apartment building plans and survey of furniture layout; the furniture in this study represents bed and desk those are mainly laid in Korean bedroom.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e methodology to find optimal alternatives of furniture and closet layout for high-rise apartment residents, based on the door and window position, and the furniture layout preference of residents.

키워드 : 가구배치, 붙박이장, 대칭성, 아파트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방향과 위치를 중시하여 이를 건물의 입지선정이나 가구나 잠자리 배치 등과 같은 생활습관에 반영시켜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남향 건물배치나 가구배치와 거리가 있는 근래의 주거공간 형태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주자의 전통적인 향(向)과 위치에 대한 습관에 상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거형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대칭을 적용하여 평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향을 고려하는 거주자 생활습관이나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평면구성이 못되는 경우가 많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한 쌍의 거주단위 공간의 경우 한쪽에서는 편하게 설계된 공간이 다른 한쪽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계획할 때 대칭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평면의 대칭성을 유지하되 무조건적인 대칭성을 갖게할 것이 아니라 거주자들의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거주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향이나 출입문 및 수납공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 부분적인 비대칭성을 가지더라도 거주자의 생활에 편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물의 방향과 건물내의 각 실의 방향이 각각 어떤 향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다.[1] 또 한편 도면분석을 통하여 실(室)의 일반형을 유형으로 선정하고 각 유형별로 향(向)과 출입문의 위치가 달라지면 거주자의 가구배치가 어떠한 선호도 경향을 가지는지 분석하여 불편하게 생각하는 평면이나 붙박이장 설치를 피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아파트의 경우 타 거주형태에 비하여 획일적인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는 공간형태상 유사하면서도 매우 다양한

* 정회원, 연세대학교 건축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공학박사

1)아파트에서 건물의 향과 침실의 향은 항시 일치하기 어려우며 이는 상충적인 면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조사의 동기로 삼았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상 대칭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가능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거주공간의 기본단위인 실(室)은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거주자가 실내에 가구 배치를 하는 선호도를 살펴보고 이와 상충되지 않는 평면계획 및 붙박이장 배치를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실의 전면 방향[2]과 출입문의 위치 및 개폐 방향과 붙박이장 위치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서구화된 생활방식이 많은 아파트 생활자를 고려대상으로 하여 가구는 침대와 책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건물들의 향을 분석함으로 실들의 배치가 일반적으로 어떤 향이 얼마나 많은지 분석하는 단계로 건물의 향에 따른 단위실의 유형[3] 분석을 실시한다. 대상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의 아파트 동을 임의로 선정하여 배치의 방위를 알아본다. 이 과정에는 아파트 동(棟) 배치도 분석과 아파트 단일세대 평면분석을 통한 각 실의 방위와 방위별로 통계적 비율을 알아본다. 또한 기존 실내에 수납공간으로 할당된 부분은 실내 어떤 위치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아본다.

둘째, 상기의 과정을 통하여 실의 기본 유형을 설정하고 거주자들은 각 유형별로 실내에 어떻게 가구를 배치하고 싶어하는가를 설문을 통하여 알아본다.

셋째, 각 실 유형별로 사용자의 가구배치 선호경향과 상충되지 않는 위치에 붙박이장을 둘 것을 분석 및 제안한다.

2. 아파트 동(棟) 배치와 향(向) 분석

2.1. 개요

아파트 동의 향을 알고 거주공간 평면에서 각 실이 어떤 면에 얼마나 있는가를 분석하면 거주공간의 최소단위인 실은 실제로 어떤 향에 얼마나 분포하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의 향을 분석함으로써 남향을 선호하는 일반적 성향과 달리 거주자는 실제 어떤 향의 실(室)에 거주하는지 분석하였다.

2.2. 조사대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모든 동(洞)을 조사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해당 구(區)의 특정 밀집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방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강변이나 하천을 조망으로 하는 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강이나 하천 주변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건물의 향(向)보다는 강 쪽을 향한 조망을 위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건물은 상기의 조건에 부합되어 선정된 총 3862개 동(棟)으로 전면이 남쪽 또는 동·서쪽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면 방향이 남동, 남서향과 같이 불분명한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각 방위별로 약 30°이내는 해당 방위로 인정하여 계수 하였다.[4]

2.3. 결과

동(洞) 배치를 방위별로 동·서·남향으로 구분할 때 각 향의 수직 방향에서 30° 내외를 건물의 각 해당 향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77.9 %가 남향, 22.1%가 동향 또는 서향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에 따라서 동·서향의 배치가 최대 50%를 넘는 곳과 최소 13%인 곳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는 약22%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

<표 1> 각 지역별 조사대상 아파트 동의 향과 비율 조사 (단위 : 개동)

지역 (區)	지역 (洞)	남향	동/서향	지역 (구)	지역 (동)	남향	동/서향
강남	일원	93	16	서초	방배	24	7
	개포	87	16		반포IC	152	42
	영동	160	35	동작	봉천	61	49
송파	주공1	75	48	영등포	신길	57	22
	주공5	22	3		당산	76	18
	잠실1	27	9	양천	목동	145	50
	잠실2	171	27	강서	화곡	153	26
	가락	111	27	용산	이태원	18	10
강동	둔촌	49	60	성동	금호	74	36
	명일	220	29	구로	구로/철산	257	72
	상일	175	26	도봉	쌍문	115	31
노원	공릉	110	36		도봉	75	30
	하계	80	12	마포	공덕	43	23
	중계	111	31	서대문	홍제	64	32
	상계	202	32	-	-	-	-
총합계 : 남향 3007개 동(77.9%), 동·서향 885개 동(22.1%) (총 3862개 동)							

3. 도면 분석을 통한 실 유형분석

3.1. 개요

거주자가 가구를 배치하는 기준은 건물의 향보다는 실의 향과 출입문의 위치 등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방들이 어떤 향과 어떤 출입문 형태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다.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15년 미만 된 아파트 중 무작위로 181개 단지의 아파트 주 평면도를 선정하고 도면 분석을 통하여 각 실의 향과 문의 위치, 붙박이 장 등의 위치를 조사하였다. 선정된 단지의 도면이 동일한 시공업체로 같은 평면을 가지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 건물의 크기별 분류와 대상 동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2)향(向)은 건물의 전면과 관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 단위로 연구를 하므로 실내의 창문 위치가 있는 방향을 실의 전면으로 간주한다.

3)본 연구에서 유형이란 가구배치에 영향을 주는 실의 방향과 출입문의 위치의 차이에 따른 형태별 분류로 한정하기로 함

4)보편적인 방위를 고려하여 전체 향을 16방위로 나누어 남향의 경우 SSE, S, SSW 방향을 남향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향과 서향도 결정하였다. 그러나 동(棟)의 배치가 4방에 중간방향은 본 연구 대상 기준에 판단이 모호하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 조사대상 건물 개요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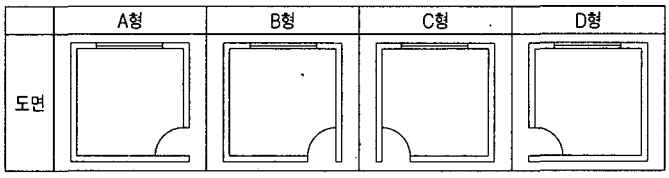
건물 평수	조사대상 동(棟)수	평균 침실 수*	주 침실 평균넓이
19평 이하	14	1.93개 실	3.92평
20평~24평	29	2.24개 실	3.93평
25평~29평	26	2.73개 실	3.93평
30평~34평	40	3.08개 실	5.06평
35평~39평	17	3.10개 실	5.06평
40평~44평	16	3.94개 실	5.26평
45평~49평	22	4.00개 실	5.42평
50평~54평	8	4.00개 실	5.42평
55평 이상	8	4.88개 실	6.23평

*거실, 욕실, 부엌, 다용도실, 드레스실 등은 제외함

3.2. 내용 및 결과

(1) 출입문의 위치에 따른 실 형태

아파트의 특성상 출입문의 위치는 창문에 반대쪽 면에 있는 편이 거의 대부분이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창문과 인접한 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4가지를 실내 형태의 기본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출입문의 위치에 따른 실내 형태 기본적 형태 선정

<그림 1>과 같이 창문의 위치에 대한 출입문의 위치와 방향을 4가지 형태를 가정하고 각 분석대상의 도면에 나타난 실 형태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창문과 출입문의 위치에 따른 실 형태 비율은 조사대상 181개 도면에 나타난 총 556개 실이 대칭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전체 1112개 실 중 A형과 D형은 각각 14.1%(157개실), B형과 C형은 각각 35.3%(392개실)으로 나타났다. 즉, 출입문의 위치는 창문과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시키는 경우가 전체의 70.5%, 창문과 직교되는 방향에 두는 경우가 28.0%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출입문 형태를 가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5]

(2) 실의 향

기본 도면에 대하여 대칭성을 가지는 한 쌍의 유닛을 고려하고 아파트 동(棟)이 남향과 동/서향의 비율이 약 4:1인 점을 고려한다면 창문이 남향인 실의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중 남향은 39.4%, 북향은 42.7%, 동향은 8.6%, 서향은 9.2%로 나타났다.[6]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남향집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실(室)은 남향보다 북향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다음 <표 3>에 각 아파트 평수에 따라 향별 실 비율을 분류하였다.

<표 3> 건물 평수에 따른 각 실별 창문의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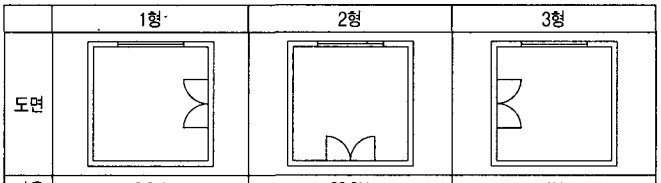
건물 평수	북향	남향	서향	동향
19평 이하	34.0%	49.4%	6.8%	9.9%
20평~24평	38.9%	41.4%	9.6%	10.1%
25평~29평	47.2%	34.3%	10.6%	8.0%
30평~34평	51.0%	30.7%	11.2%	7.1%
35평~39평	40.4%	40.4%	9.6%	9.6%
40평~44평	42.3%	41.0%	8.5%	8.2%
45평~49평	38.8%	44.5%	7.8%	9.0%
50평~54평	36.5%	46.9%	7.3%	9.4%
55평 이상	38.5%	44.9%	7.7%	9.0%
전체	42.7%	39.4%	9.3%	8.6%

* 상기의 값은 남향(80%) 동·서향(20%)로 각 아파트 동(棟)비율을 고려 한 값이다.

<표 3>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30~34평에서 북향인 방이 가장 많고(51%) 남향이 가장 적었다(30.7%). 그러나 25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들과 45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들에서 북향인 실(室)의 비율이 적어지고 남향인 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한편 서향이나 동향인 실은 약 9% 전후로 타나나고 있으며 건물 평수에 따라 큰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남향인 건물의 평면에 동·서향이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동(棟)이 서향이나 동향을 가짐으로써 발생되는 결과이다.

(3) 붙박이 장 및 인접 화장실 출입문 위치에 따른 실 형태

실내에 붙박이 장이나 실에 연결되는 화장실 출입문이 있는 경우 거주자가 가구 배치나 공간 활용을 할 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내 어떤 위치에 붙박이장이나 인접한 화장실 출입문이 있는지 그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림 2> 붙박이 장이나 인접 화장실의 위치에 따른 유형

출입문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창문위치를 기준으로 붙박이장의 위치와 유형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와 같이 실내 형태와 붙박이장 또는 침실과 연결된 드레스실이나 화장실 출입문이 위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때 실 평수별 붙박이장 위치의 비율은 아래 <표 4>와 같다.

5)수집된 기본도면만 볼 경우 조사대상 건물 도면에 나타난 침실 개수 총 442개 실 중 A형은 14.7%(82개 실), B형은 36.3%(202개실), C형은 34.2%(190개실), D형은 13.5%(75개실), 그리고 상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닫이문으로 창문과 반대 방향에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약 1.3% 정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대칭 된 형상을 띄므로 A형과 D형, B형과 C형의 개수는 같다고 볼 수 있다.

6)분석대상 도면의 좌우 대칭을 고려할 때 대상 실(室) 개수는 총 1110개 실이었으며 남향 524개실, 북향 566개실, 서향과 동향 각각 10개 실씩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2장에서 아파트 동(棟)의 방향이 남향과 동·서향의 비율이 약 4:1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향 또는 서향으로 배치된 동은 서향이 113개실, 동향이 105개실씩 보정하여 북향이 570개실, 남향이 526개실, 서향이 124개실, 동향이 115개실로 분석되었다.

<표 4> 건물 평수에 따른 붙박이 장 설치 비율

건물 평수	1형 및 3형° 붙박이 장	2형°°		합계
		붙박이장	화장실	
19평 이하	4.2%	12.5%	0%	16.7%
20평~24평	1.5%	12.3%	0%	13.8%
25평~29평	0%	12.7%	1.4%	14.1%
30평~34평	7.3%	18.7%	18.7%	45.5%
35평~39평	3.6%	18.2%	20.0%	41.8%
40평~44평	9.5%	20.6%	25.4%	55.6%
45평~49평	8.4%	19.1%	23.8%	51.2%
50평~54평	18.7%	18.8%	21.9%	62.5%
55평 이상	15.4%	28.2%	18.0%	62.0%
전체	6.9%	17.8%	15.6%	40.3%

°1형과 3형은 대칭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수치가 계수 됨
°°2형의 경우는 붙박이장이 있는 경우와 화장실 문이 있는 경우로 구분함

창을 기준으로 오른쪽 벽면에 부착된 경우(1형)는 전체 556개 중 16개로 2.9%, 창을 기준으로 왼쪽 벽면에 붙어 있는 경우(3형)는 전체 556개 중 22개로 4.0%, 창 맞은편에 붙박이장이 위치한 경우(2형)는 전체 중 99개 경우로 17.8%, 침실과 인접한 화장실 또는 드레스 실이 있는 (2형)은 87개로 15.6%, 이들 둘의 합계(2형)는 556개 중 181개 실로 32.6%로 나타났다. 도면이 대칭 된 거주단위가 존재하므로 <그림 2>의 1형과 3형은 같은 비율로 존재한다고 보면 1형과 3형을 합하여 7%이며 2형은 32.6%로 나타났다. 실내에 아무 것도 없는 실의 비율은 59.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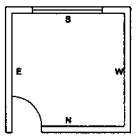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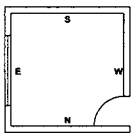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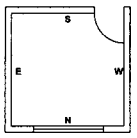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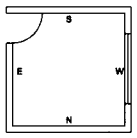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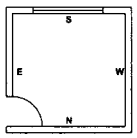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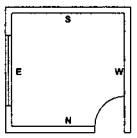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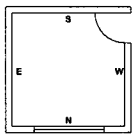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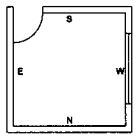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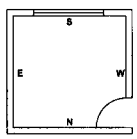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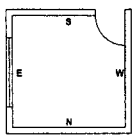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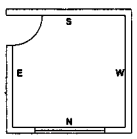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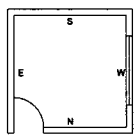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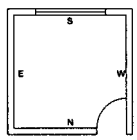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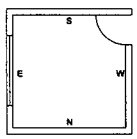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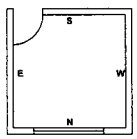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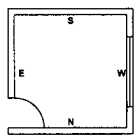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침실에 화장실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25평 이상 아파트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침실에 부착된 출입문 이외 가구 배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화장실)의 비율이 40평을 전후로 가장 크며 붙박이장의 경우는 역시 대형평수인 집일수록 붙박이장의 비율 역시 크게 나타났다. 즉, 실내에 가구 배치가 출입문, 창문, 붙박이장이나 화장실 출입문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작은 평수는 이러한 화장실이나 수납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큰 평수는 기존에 존재하는 설치물의 위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므로 가구 배치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의 1형과 3형과 같은 배치의 붙박이장은 모든 평형의 아파트에서 2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서 모든 형의 붙박이장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도면에 나타난 실 전체적으로 약40%정도가 실에 부착된 붙박이장이나 화장실 문 등으로 인하여 가구 배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실 중 거의 반에 가까운 실(室)이 거주자 임의로 가구배치를 할 수 있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착물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붙박이장이나 그 외의 설치물은 사용자가 실내에 가구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향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불편함이 적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실의 방향과 붙박이장 설치

전술하였듯이 실내에 가구(침대, 책상 등)를 배치할 때 실내의 붙박이장 또는 화장실 출입문위치가 영향을 주므로 실 유형별로 이들이 설치된 비율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표 5> 창문 방향과 출입문을 고려한 실(室) 유형도 및 붙박이장 설치 비율

	남향		동향		북향		서향	
도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237실 (17.7%)		49실 (3.7%)		150실 (11.2%)		34실 (2.5%)	
장	1형	5.1%	1형	5.1%	1형	12.7%	1형	12.7%
장	2형	3.4%	2형	3.4%	2형	28.0%	2형	28.0%
문	2형	33.3%	2형	33.3%	2형	0%	2형	0%
장	3형	0.4%	3형	0.4%	3형	1.3%	3형	1.3%
-	전체	43.9%	전체	43.9%	전체	42.0%	전체	42.0%
도면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18실 (1.3%)		5실 (0.4%)		136실 (10.2%)		30실 (2.2%)	
장	1형	0%	1형	0%	1형	0.7%	1형	0.7%
장	2형	5.6%	2형	5.6%	2형	35.6%	2형	35.6%
문	2형	16.7%	2형	16.7%	2형	0%	2형	0%
장	3형	0%	3형	0%	3형	0.7%	3형	0.7%
-	전체	22.2%	전체	22.2%	전체	37.0%	전체	37.0%
도면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19실 (1.4%)		7실 (0.5%)		135실 (10.1%)		28실 (2.1%)	
장	1형	0%	1형	0%	1형	0.7%	1형	0.7%
장	2형	5.6%	2형	5.6%	2형	35.6%	2형	35.6%
문	2형	16.7%	2형	16.7%	2형	0%	2형	0%
장	3형	0%	3형	0%	3형	0.7%	3형	0.7%
-	전체	22.2%	전체	22.2%	전체	37.0%	전체	37.0%
도면	유형 [13] 		유형 [14] 		유형 [15] 		유형 [16] 	
	238실 (17.8%)		51실 (3.8%)		149실 (11.2%)		32실 (2.4%)	
장	1형	0.4%	1형	0.4%	1형	1.3%	1형	1.3%
장	2형	3.4%	2형	3.4%	2형	28.2%	2형	28.2%
문	2형	33.3%	2형	33.3%	2형	0%	2형	0%
장	3형	5.1%	3형	5.1%	3형	12.8%	3형	12.8%
-	전체	44.3%	전체	44.3%	전체	42.3%	전체	42.3%

※ 전체 조사대상 실(室) 수는 1334개 실이다. (건물의 동·서향 20% 고려한 수치)
※ 상기의 기본유형에 들지 않는 대상이 14개 실이 있었음
※ 상기에서 '장(櫥)'의 의미는 붙박이장을 의미하며 '문(門)'의 의미는 출입문이외에 화장실이나 드레스실과 통하는 문을 의미함
※ '1형, 2형, 3형'은 <그림 2>와 같이 붙박이장이나 화장실문 등의 위치를 의미함

<표 5>에서 실의 향과 출입문의 위치를 고려하여 16가지 실내 형태를 평면도로 나타내고 각 형태에 따라서 붙박이장과 화장실 출입문의 비율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7] 실

의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는 [1]번과 [13]번으로 각각 17.7%와 17.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 [7], [11], [15]번이 각각 10~11%로 나타났다. 여기서 [1]번과 [13]번은 남향이고 [3], [7], [11], [15]번은 북향이다. 그 중 [7], [11]번은 출입문의 위치가 측면에 있는 경우로 북향인 방의 경우는 출입문의 위치가 측면으로 설치된 경우와 창문과 맞은 편에 설치된 경우가 비슷한 비율(10%, 11%)로 나타난 반면 남향인 경우는 출입문의 위치가 측면에 있는 경우보다 창문과 맞은편에 위치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침실과 연결되는 화장실 또는 드레스실의 경우는 안방에만 있고 안방은 주로 남향에 위치시키는 편이므로 주 출입문 이외의 문에 의하여 가구배치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남향인 방에서 주로 나타났다.

한편, 실내에 설치된 붙박이장이나 출입문이 있는 경우는 창문과 맞은편에 출입문이 위치하는 경우(평균 43%)가 측면에 출입문이 위치하는 경우(평균 30%) 보다 훨씬 많은 편이었다.[8]

붙박이장의 위치는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많은 경우 '2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실의 평균이 '2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7.8%, '1형', '3형'은 합하여 6.9%로 나타났으나 북향인 실의 경우는 약 12%이상으로 '1형'과 '3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향은 남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 형태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출입문의 방향은 남향에서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창문에 대하여 측면)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동향이나 서향의 경우는 남향인 집에 비하여 적으며 그 배치 형태 또한 남향집에 준하므로 <표 5>에서와 같이 서향은 남향, 서향은 북향에 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조사대상 아파트의 실 유형과 붙박이장 및 화장실 설치위치 비율 (%)*

유형*/향	1형	2형		3형	유형*/향	1형	2형		3형
		화장실	장				화장실	장	
[1] 남	2.2%	14.7%	1.5%	0.2%	[9] 남	0%	0.6%	0.2%	0%
[2] 동	0.4%	2.9%	0.3%	0%	[10] 동	0%	0.1%	0%	0%
[3] 북	3.5%	0%	7.8%	0.4%	[11] 북	0.2%	0%	9.0%	0.2%
[4] 서	0.7%	0%	1.6%	0.1%	[12] 서	0%	0%	1.8%	0%
[5] 남	0%	0.6%	0.2%	0%	[13] 남	0.2%	14.7%	1.5%	2.2%
[6] 동	0%	0.1%	0%	0%	[14] 동	0%	2.9%	0.3%	0.4%
[7] 북	0.2%	0%	9.0%	0.2%	[15] 북	0.4%	0%	7.8%	3.5%
[8] 서	0%	0%	1.8%	0%	[16] 서	0.1%	0%	1.6%	0.7%

* 실유형 번호는 <표 5> 및 <표 7>의 그림과 동일한 유형을 의미함
전체 1112개 실 중 장 또는 화장실 등이 있는 447개의 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5) 실 유형과 붙박이장 및 화장실 설치비율

실의 유형에 따라서 가구배치에 영향을 주는 붙박이장과 화장실의 위치가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에 많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7)실의 모양은 <표 5>와 같이 나타냈으나 실제 실의 장단변비가 표에 나타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인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나 대부분 장·단변 비율이 큰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편의상 정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8)전체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그러한 형태의 실일 경우 붙박이장이나 화장실 등 가구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확률을 의미함

3.3. 실 크기와 가구배치

(1) 개요

가구 배치는 실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실의 크기와 가구배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내에 둘 수 있는 가구는 책장 및 옷장, 침대, 책상, 가전제품, 소파 및 의자 등 다양한 대상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책상과 침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옷장 및 장롱의 경우는 안방이 아니면 두는 경우가 드물고, 소파나 의자는 거실에 주로 두고 침실에 두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 및 결과

싱글침대 크기는 약 2.1m×1.2m 전후이며 일반적인 책상은 A0사이즈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2m×0.9m이상이다. 이때 이들 을 실내에 배치할 수 있는 방의 최소 크기는 1.6평이 되며 자유롭게 이들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최소크기의 실 크기는 약 정방형 3.3평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조사대상인 도면에 나타난 1112개 실의 평균크기는 3.63평으로 조사되었다. 평형별 평균 및 최대 최소 크기는 다음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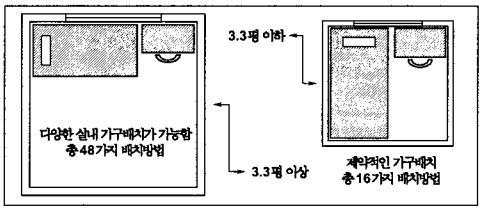
상기의 계산으로 침대와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실의 크기가 최소 1.7평 이상이라고 한다면 전체 실 중 96.0%가 가능하였다. 침대와 학생용책상 위치가 자유롭게 배치될 수 있는 크기가 정방형 3.3평이지만 정방형이라는 조건을 무시할 경우 전체 실 중 57.0%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건물 평수에 따른 실의 평균 크기

건물 평수	안방	전면방	후면방	전체 실 평균
19평 이하	3.83평	-	2.02평	3.04평
20평~24평	3.93평	2.30평	2.34평	3.06평
25평~29평	3.93평	3.14평	2.41평	3.03평
30평~34평	5.06평	2.83평	2.81평	3.54평
35평~39평	5.05평	3.17평	2.96평	3.67평
40평~44평	5.26평	3.84평	3.32평	3.95평
45평~49평	5.42평	3.80평	3.65평	4.14평
50평~54평	5.42평	4.11평	3.44평	4.14평
55평 이상	6.24평	4.18평	3.60평	4.33평
전체	4.75평	3.66평	2.93평	3.63평

* 전면방은 안방을 제외한 방이며 주로 남향을 의미함. 후면방은 북측을 의미함

(3) 실(室) 크기에 따른 가능한 가구 배치형태



<그림 3> 실(室) 크기에 따른 침대와 책상 배치의 제약성 예시

실(室) 크기에 따라서 가구배치는 형태는 달라지게 된다. 작은 방은 침대와 같은 큰 가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부자리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내에 가구배치 측면에서 접근하므로 편의상 이러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출입문과 붙박이장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림 3>과 같이 배치가 가능하다.

4. 실내 가구배치 선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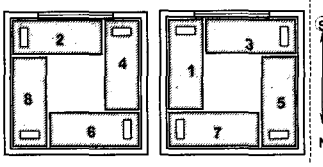
4.1. 개요 및 조사방법

출입문과 창문 및 붙박이장 등의 위치에 따라 가구배치가 영향을 받으므로 실 평면 계획에 사용자의 가구배치 선호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항목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방법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은 유형으로 16개 실 도면을 응답자에게 주고 실내에 자유롭게 가구(침대와 책상)배치를 그림 그리도록 하였다. 특히 침대의 경우는 응답자가 잠을 자는 방향을 같이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 대상은 일반인으로 무작위 추출된 대학생 및 일반인 80명으로 거주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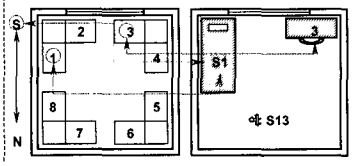
4.2. 조사결과

(1) 각 실별 가구배치에 대한 응답형태

각 경우의 실 형태에서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 하나에서 배치될 수 있는 침대나 책상 배치는 출입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림 4>과 같이 8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이 있는 쪽에 가구를 배치할 수 없으므로 실에서 가구 하나를 배치 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가 된다. 또한 책상을 추가로 배치시킬 경우 문이 있는 쪽과 침대가 있는 구석을 제외하면 4가지 방법이 있다. 따라서 24가지 배치방법이 있다. 가구의 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출입문의 위치는 <그림 1>의 A형 및 B형과 C형 및 D형이 해당한다.[9]



<그림 4> 실내에 침대 또는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의 8가지 예



<그림 5> 본 연구에서 실내 가구위치와 위치 명명과 그 예

또한 이들은 각각 A, B와 C, D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같은 조건으로 본다면 2가지 경우의 수가 증가하게 되며 기존24개 배치방법의 2배인 48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또한 침대머리의 방향을 고려할 경우 96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경우를 모두 그림으로 나타내기에는 번거로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그림 5>와 같은 방식으로 가구배치를 이름하기로 한다.[10]

(2) 실내 형태별 가구배치 선호 경향

본 연구에서 가정한 실 형태는 실내에 자유롭게 책상과 침대를 배치 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표 8>과 같이 실내형태와 형태별 응답자 가구배치 선호경향을 분석하였다.

<표 8> 실 유형에 따른 가구배치 경향과 응답빈도

	남향		동향		북향		서향	
도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순위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1	S42	29.0%	E28	30.4%	N86	14.5%	W64	18.8%
2	S41	14.5%	E27	15.9%	S15	10.1%	W63	8.7%
3	W64	8.7	S14	5.8%	E28	8.7%	-	-
4	-	-	E72	5.8%	-	-	-	-
도면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순위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1	S42	23.2%	E28	23.2%	N85	15.0%	W64	14.5%
2	S41	13.0%	E27	15.9%	E27	8.7%	W63	13.0%
3	S13	11.6%	S42	5.8%	-	-	E73	10.1%
4	S14	10.1%	E78	5.8%	-	-	E76	7.2%
도면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순위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1	S13	29.0%	E71	31.9%	N57	17.9%	W35	18.8%
2	S14	10.1%	E72	7.2%	N85	7.2%	W36	7.2%
3	S42	10.1%	E27	5.8%	S46	5.8%	S42	7.2%
4	E27	5.6%	-	-	E76	5.8%	-	-
도면	유형 [13]		유형 [14]		유형 [15]		유형 [16]	
순위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응답유형	응답비율
1	S13	27.5%	E71	24.6%	N57	13.0%	W35	17.4%
2	S14	13.0%	E28	10.1%	N86	10.1%	W64	10.1%
3	S42	10.1%	E72	8.7%	-	-	S41	5.8%
4	-	-	-	-	-	-	W36	5.8%

※ 유형 명명은 <본문4.2 (1)>과 같은 방식으로 가구 배치를 표현하였음
※ 유형 번호별 도면은 <표 5>와 동일함

일반적으로 남향이나 동향인 실에서는 가구를 배치하는 경향이 유사한 응답 경우가 많은 편이었으나 북향이나 서향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구배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특히 북향의 경우는 실의 형태에 따른 가구배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 응답은 향과 관계없이 창문과 출입문의 위치를 고려하여 가구를 배치하는 편이었으나(<표 8>에서 회색음영 표시한 부분) 각 유형별로 일관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매우 적어서 최소13%~최대 30% 미만으로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침대배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출입문의 위치로 출입문과 떨어진 곳에 배치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침대의 위치는 출입문과 대각선 방향에 위치시키고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가 직접 보이지 않는 쪽으로 침대를 배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책상의 경우는 창문과 가까운 곳에 배치시키는 편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가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

9)싱글침대와 책상배치 방법 중 실 벽면에 접한 중앙부에 배치하는 경우는 설문응답자가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가 매우 적어서 생략함

10)실의 크기나 실의 장단변비에 따라서 이와 같은 가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그림 5>와 같은 방식으로 가구배치를 나타낸다면 E23과 같은 배치나 S45 등의 배치가 불가능한 실(室)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실내 가구배치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과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표 8>의 1~3순위 유형으로 가구배치를 그린 사람의 비율은 다음 <표 9>와 같다. 1,2순위는 실의 향과 관계없이 창문과 출입문의 위치만 고려하는 경우로 침대와 책상을 창문 쪽으로 배치하는 경우이다. 1~3순위까지를 종합한 결과 응답자 중 약 10.7%가 76%~100% 일치하는 경우이며 24.6%가 51%이상 일치하는 배치를 그렸다. 그러나 그러한 유형에 일치하는 경우가 50%이하로 가구배치를 그린 응답자는 65.1%로 나타났다. 즉, 각 유형별로 향보다는 창문과 문의 위치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실 유형에서 향을 무시하고 배치하는 응답자는 매우 적음을 의미한다.

<표 9> 창문과 출입문 위치에만 가구배치에 영향을 받는 응답자 비율 조사

일치 비율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76%~100% 일치 13~16개 유형 일치 응답자 비율	7.2%	0%	0%	10.7%
51%~75% 일치 9~12개 유형 일치 응답자 비율	5.8%	2.9%	0%	24.6%
26%~50% 일치 5~8개 유형 일치 응답자 비율	21.7%	4.3%	0%	21.7%
0%~25% 일치 0~4개 유형 일치 응답자 비율	65.2%	92%	100%	43.4%

*가구배치 빈도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창문 및 출입문의 위치만 고려하는 경우
**1순위 다음으로 응답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창문의 방향이 고려됨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빈도중 하나 이상에 속하는 응답일치 비율

(3) 침대 방향 분석

수면 방향이 실내 가구배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침대배치와 더불어 수면 방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잠자는 방향은 침대의 위치와 더불어 부수적인 가구나 가전제품의 배치와 관계가 있다. 즉, TV나 전화 및 이들을 놓을 수 있는 받침대용 가구 등의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실 유형에 따른 침대배치 선호방향 응답 결과

실유형*	창문의 향	남향으로 배치	동향으로 배치	북향으로 배치	서향으로 배치
[1]	남	63.3%	5.8%	8.7%	23.2%
[2]	동	23.2%	63.8%	4.3%	8.7%
[3]	북	26.3%	33.3%	34.8%	5.8%
[4]	서	10.1%	24.6%	23.2%	42.0%
[5]	남	71.0%	7.2%	8.7%	13.0%
[6]	동	26.1%	59.4%	1.4%	13.0%
[7]	북	23.2%	36.2%	34.8%	5.8%
[8]	서	14.5%	23.2%	18.8%	43.5%
[9]	남	60.9%	15.9%	10.1%	13.0%
[10]	동	31.9%	65.2%	7.2%	8.7%
[11]	북	18.8%	23.2%	39.1%	18.8%
[12]	서	32.9%	21.7%	4.3%	42.0%
[13]	남	62.3%	18.8%	13.0%	5.8%
[14]	동	14.5%	56.5%	13.0%	15.9%
[15]	북	31.9%	10.1%	37.7%	20.3%
[16]	서	29.0%	21.7%	4.3%	44.9%
평균	-	33.6%	30.4%	16.5%	20.3%

* 유형 번호는 <표 5> 및 <표 8>의 그림과 동일한 유형을 의미함

침대의 수면방향은 창문의 향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가구배치 유형 중 가장 많은 응답빈도를 보인 것이 창문과 출입문의 위치에 따라서 침대와 책상을 창문 부근에 배치하는 것이라면 다른 배치로 응답한 사람들은 침대의 수면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0>에서 창문의 향과 침대 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창문의 향이 남향이나 동향인 경우는 침대의 배치가 창문의 향과 동일한 향을 가지는 비율이 매우 높으나 북향이나 서향인 경우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서향의 경우는 40%전후가 서향으로 배치[11]하지만 각 유형별 북향인 경우는 35%전후만 북향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를 하고 있었다.

5. 종합고찰 및 결론

5.1. 실 유형 및 경향

전체 실의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파트 동의 향을 조사 한 결과 77.9%는 남향으로 볼 수 있으며 약 22.1%는 동향(서향)을 향하고 있었다. 또한 19평~60평까지의 도면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남향인 건물이라 하여도 남향인 방은 39.4%, 북향인 방은 42.7%로 실제로는 북향인 방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남향인 방이 가장 적고 북향이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하는 평수는 30평 전후의 규모(남향30.7%, 북향51%)였다.

5.2. 실 형태별 가구배치 선호경향

실내에 위치하는 창문의 향과 출입문의 위치에 따라 실 유형을 나누었을 때, 실내에서 거주자의 가구배치 선호경향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었다. 우선, 향은 관계없고 창문과 출입문의 개폐 위치만 고려한 가구배치로 창의 향과 관계없이 창문주위에 가구(침대와 책상)를 배치시키는 경우로 전체 실 유형 중 ¾이상을 그렇게 배치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약 10.7%이었으며 모든 유형에서 50%이상을 그렇게 응답한 경우는 35.3%(<표 9>에서 10.7%+24.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전체로 볼 때 더 많은 응답자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다른 배치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별 배치의 보편적인 경향은 침대는 실 구석에 붙여서 배치하되 침대머리 방향이 구석을 향한다. 그리고 배치는 가능하면 동향이나 남향을 가지도록 배치하되 출입문과는 대각선 위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리고 책상은 창문 주변에 배치하되 침대와는 반대편에 위치시키는 편이었다. 그리고 침대 배치의 경우 <표 10>에 타나난 바와 같이 실의 방향이 남향이거나 동향인 경우 침대의 방향이 남향이나 동향에 배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실의 방향이 서향으로 되어있을 경우 창문의 방향과

11)서향이나 북향인 경우 서향이나 북향으로 침대를 배치하는 경우는 창문의 위치에 따라 침대를 배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일치하는 방향인 서향을 침대의 방향으로 선택하는 응답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북향인 실의 경우 침대배치에 있어서 창문의 방향이 침대의 위치를 결정짓는 절대적 항목이라고 볼 수 없었다. 즉, 많은 응답자 중 침대의 배치방향을 실의 향과 관계없이 동쪽이나 남쪽에 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붙박이장 및 화장실의 설치 위치

가구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붙박이장이나 화장실 등은 전체 실 중 약 40.3%에 해당하였으며 실의 향과 형태에 따라서 <표 5>와 같이 분석되었는데, 각 실 유형별로 가구배치에 영향을 주는 붙박이장이나 화장실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창문과 마주보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붙박이장만 따져볼 경우는 북향인 경우가 더 많았고 <그림 2>의 1형과 3형 역시 북향인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있었다.

5.4. 실내 붙박이장의 위치 결정

(1) 응답자의 가구배치 기준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거주자가 침대와 책상을 사용한다면 만약, 남향인 실에서 S13, 또는 S41과 같이 가구배치를 할 경우 상당수의 응답자가 공감하는 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남향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S13이나 S41과 같은 특정한 배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 유형과 관계없이 응답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침대의 남향배치', '창문과 인접한 책상' 등은 거주자가 가구배치에 고려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사용자의 가구배치가 창문의 향, 출입문의 위치에 관계되며 특정한 유형의 실은 실내에 가구배치가 불편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북향>서향>동향>남향의 순서로 응답유형이 다양하며 이것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가구를 배치할 수 있어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고 보기 보다 침대배치에서 특정한 향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이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 실 유형에 따른 붙박이장의 위치

<표 11> 실 유형과 사용자 가구배치 경향을 고려한 붙박이장 설치 위치 제안

유형*/향	유리**	불리**	현황***	유형*/향	유리	불리	현황***
[1] 남	2	1	2>1>3	[9] 남	2	3	2>1=3
[2] 동	2,3	1	2>1>3	[10] 동	2	3	2>1=3
[3] 북	3	1	2>1>3	[11] 북	1,2	3	2>1=3
[4] 서	2	1	2>1>3	[12] 서	2	3	2>1=3
[5] 남	2	3	2>1=3	[13] 남	2	3	2>3>1
[6] 동	3	1	2>1=3	[14] 동	1,2	3	2>3>1
[7] 북	3	2	2>1=3	[15] 북	2	3	2>3>1
[8] 서	2,3	1	2>1=3	[16] 서	1	2,3	2>3>1

* 실유형 번호는 <표 5> 및 <표 7>의 그림과 동일한 유형을 의미함
** 유리/불리/현황 항목에 표시방법은 <그림 2>의 위치기준 표시방법에 준함
*** 도면조사로 각 유형별로 각 형태의 붙박이장 배치형태 빈도. <표 6>을 참조함

실내에 화장실이나 붙박이장의 위치로 인하여 거주자가 선호하는 실내 가구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8>과 <표 4>를 고려할 때 각 유형별로 유리한 붙박이장 위치 유형을 다음 <표 11>에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난 '유리'는 사용자가 해당 실 유형에서 침대나 책상을 배치하도록 그림을 그린 응답빈도가 낮은 위치이다. 또한 '불리'는 응답자가 침대 또는 책상을 배치하도록 응답하여 가구 배치에 충돌이 쉬운 위치이다.

5.5. 현 아파트 실 형태와 가구배치 용이성

<표 11>과 같이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실내에 침대나 책상을 배치시킬 때 불편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표 11>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의 실 유형은 사용자의 가구배치 경향과 실에 존재하는 붙박이장이나 화장실 출입문 등이 상충될 수 있는 경우이다. 특히 [3], [6], [7], [16]은 응답자의 가구배치 경향과 매우 상충되는 경우이며 [8], [11], [14]는 상충되지는 않으나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경우로 붙박이장의 다른 배치도 가능한 경우이다.

5.6.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침대와 책상이라는 대표적인 침실 배치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가구배치 선호와 도면분석을 통한 실 유형별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자의 가구배치 의지에 맞는 실 형태와 실 유형별 붙박이장 설치위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침대를 사용하는 서구화 된 실내 주거경향 및 배치보다는 전통적인 요를 사용하는 생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들에 대한 경우는 본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대상인 침대와 책상뿐만 아니라 옷장이나 장롱 등의 가구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또한 실 유형은 정사각형이고 싱글침대와 학생용 책상이 자유롭게 배치될 수 있는 3.3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여러 가지 경우도 연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조원덕 · 박만식, 가구배치 상황에서 본 집합주택의 주생활 동향,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9 n.2, 1989.10
2. 김오성, 아파트의 가구배치 선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3. 안호협, 아파트 가구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7
4. 남경숙, 아파트 거실가구배치가 생활 패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5. 김석경 · 박광재 · 안미라, 소형 공동주택 내 수납공간의 규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 17 n.11, 2001.11
6. 이유미 · 임미숙 · 백혜선, 소형아파트거주자의 실내공간 이용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 17 n.2, 2001.02
7. 김소영, 아파트 붙박이 수납가구의 사용실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접수 : 2003. 8. 29>